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14호 【루계 제24892호】 주체104(2015)년 4월 24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사상전선의 전초병된 긍지를 안고 맡은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보통강구역량정사업소 로동자 조세옥은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자료들과 상식자료들을 비롯한 많은 참고자료들을 학습내용에 맞게 반영하고 강의를 알기 쉬우면서도 들을 맛이 나게 하여 실효를 높이고있으며 실천적모범으로 맡은 혁명과업수행에서 앞장서고있다.

당사상전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간직하고 단천제련소 로동자 김한구, 신의주신발공장 과장 김원남은 정치리론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을 꾸준히 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누구나 다 당에서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환히 알도록 하기 위한 사상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다.

철도성병원 과장 신정순도 높은 실력을 지니고 대중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강의를 설득력있게 함으로써 우리 학습강사로 불리우고있다.

오랜 기간 학습강사로 사업해온 함흥철도국 사령원 리남수, 황해북도 고려약생산관리국 신문주필 윤영호는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자료들과 준법해설자료 등을 준비해가지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강의에 리용함으로써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평양시 형제산구역 서포소학교 교장 김인실은 수십년동안 후대교육사업에 헌신하면서 당의 사상과 방침을 깊이 인식시키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강의를 통속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였으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교원들의 사업과 생활도 잘 돌봐주고있다.

당의 초급선전일군된 영예를 안고 자강도보험국 화평군보험지사 지사장 김성찬, 조선과학기술총련맹 량강도위원회 위원장 박관혁도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학습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그들이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하였다.

영광스럽게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학습강사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당정책의 열렬한 선전자, 대중의 훌륭한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해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리종욱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과학자 원사 교수 박사인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 리종욱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23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굳락크에벨레 죠나탄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23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하실것이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고 수리아위기를 나라의 령토완정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국제법에 기초하여 정치적방법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을 지지하여주고계시는 각하의 진실한 립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원수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5년 4월 19일 디마스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여러 나라 국가, 정부수반들을 만났다

【쟈까르따 4월 22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에 참가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2일 쟈까르따에서 마다가스까르공화국 대통령, 르완다공화국 수상,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부대통령을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마다가스까르공화국 대통령 헤리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는 마다가스까르와 조선의 선대수령들께서 마련하여주신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의 친선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르완다공화국 수상 아나스따스 무레케지는 자기 나라가 조선의 사심없는 지지성원속에 정치적독립을 이룩한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조선과의 친선협조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볼리바르공화국 부대통령 호르헤 아레아싸 몬뜨쎄라뜨는 베네수엘라볼리바르혁명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주고있는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조선과의 친선관계를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시키고 뿔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해나갈것이라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앞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1일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인 메가와띠 수카르노뿌뜨리 인도네시아공화국 전 대통령과 쟈까르따시장 바쑤끼 뜨쟈하쟈 뿌르나마와 일행을 각각 만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부강조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불멸의 업적을 천추만대 길이 빛내여가리

량강도당위원회에서

량강도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이 땅 그 어디나 그러하지만 조국의 북변 량강땅에는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가슴뜨거운 혁명사적이 수많이 깃들어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에 대한 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진행하여 그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전면적으로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각급 당조직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보여주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과 혁명사적물들을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도안의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참관사업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천추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혜산시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대한 참관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참관하면서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로 존엄높은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생애를 다시금 깊이 되새기고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량강도를 거듭 찾아주시던 나날들에 있은 가지가지의 감동깊은 사연들을 놓고 위대한 인간,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우리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망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고있다.

량강땅인민들을 잘살게 하시려 북방의 높고 험한 령을 넘고 넘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의 자욱자욱을 감회깊이 되새겨보게 하는 덕성실기발표모임과 접견자들과의 상봉모임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거룩한 현지지도의 자욱을 남기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에 나간 도당위원회의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일도 같이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이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령도업적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도의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태양절을 맞으며 도당위원회에서는 선전선동부일군들과 당선전일군들로 조직된 강력한 선전선동력량으로 삼지연군과 백암군의 령도업적단위들에 대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였다. 당선전일군들은 건설장들과 갑자산지들에 나가 직관선동, 예술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의 선전선동활동을 계기에 맞게 진공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새겨주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도록에 대한 해설모임과 태양절을 맞으며 강습을 의의있게 진행하고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깊이 연구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급 당조직들에서 각 군들에서 태양의 꽃 김일성화를 널리 보급하고 품들여 키우는 과정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도록 하였다.

도에서는 건군절을 맞으며 로동계급과 직맹원들의 웅변모임, 도예술단예술인들의 공연, 전쟁로병들과의 상봉모임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있다.

뜻깊은 4월에 들어와 진행되는 예술공연들에서 연고자들과 접견자들, 전쟁로병들을 출연시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마련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고매한 덕성, 불멸의 령도업적을 더욱 격조높이 노래하게 하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정치사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에서 개척되고 승리의 한길만을 꿋꿋이 이어가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60여개 림산작업소들에서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 완수

림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림업성아래 60여개 림산작업소들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통나무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킬 대담한 목표밑에 림업성의 일군들은 생산지휘를 전투적으로 하면서 보장사업에 힘을 넣었다.

림업성과 관리국, 사업소들의 책임일군들은 들끓는 산판마다에서 대중의 심장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시켜주면서 그들이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위훈자가 되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였다.

올해 통나무생산계획수행에서 겨울철산지통나무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이악하게 투쟁하며 채벌장마다에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자강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산지통나무생산에서 앞장에 섰다.

룡림림산사업소의 광성, 룡운, 후지, 구룡, 신흥작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기계톱의 리용률을 높이는것과 함께 사이나르기에 힘을 넣어 년간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강계, 양계, 동신, 위원갱목생산사업소와 화평림산사업소아래 작업소들에서도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는것과 함께 서리치기를 앞세우고 나무베기공, 밀대공, 아지따기공들의 역할을 높여 매일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량강도림업관리국 유평, 갑산림산사업소아래 작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특히 유평림산사업소아래 작업소들에서는 림지조건에 맞게 부림소에 의한 나무나르기와 통쏘이 등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앞당겨 끝내였다.

함경남도림업관리국아래 도안림산사업소의 산수, 문암작업소와 장진림산사업소의 메물, 갈전, 중남, 백암, 서한작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생산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면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년간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평안남도, 함경북도, 강원도림업관리국아래 여러 작업소 로동계급도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으로 산악같이 떨쳐나 년간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지금 림업성아래 각지 림산, 갱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한마음으로 생산성과를 확대하며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본사기자 정 경 철

상반년 석탄생산계획 넘쳐 수행

사리원탄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사리원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상반년 석탄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피끓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뜻깊은 올해에 석탄생산을 대담하게 늘일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참신하게 벌리면서 높이 세운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탄부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석탄생산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탄부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매일 석탄생산계획을 200%이상 넘쳐 수행함으로써 상반년계획을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참모부의 일군들은 당조직의 지도밑에 로력조직과 자재보장, 설비관리와 기술관리에 힘을 넣고 전투조직과 지휘를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갔다.

이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탐구도입하는 한편 자신들부터가 앞채를 메고 뛰고 또 뛰였다. 특히 동발과 쇠바줄을 비롯한 자재보장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대중을 석탄생산에로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혁신갱과 청년갱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속에 소대별, 중대별경쟁을 실속있게 벌려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였다. 보장부문 일군들과 종업원들, 탄광가족들도 뜨거운 애국의 마음안고 들끓는 갱막장들에 들어가 석탄증산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적극 도와나섰다.

이곳 일군들과 탄부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뜻깊은 올해에 석탄산을 높이 쌓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애국의 한마음으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증산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본사기자 홍 철 호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 순천화력발전소에서 —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무적필승의 강군을 키우신 선군령장 김정일대원수님

↑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부대의 임무수행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 끊임없이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9(2000)년 11월

일당백의 고향인 대덕산초소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3월

인민군군인들의 훈련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5(2006)년 4월

인민군대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4(2005)년 5월

해병들의 항해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64(1975)년 7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9(2010)년 1월

다박솔초소를 찾아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4(1995)년 1월

판문점을 찾으시여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는 초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85(1996)년 11월

후방시설을 훌륭히 꾸려놓은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체93(2004)년 1월

백두에서 시작된 선군혁명의 길을 대를 이어 끝까지 걸어가자

위대한 당을 따라 승리와 영광의 천만리

항일혁명을 힘있게 주도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뜻깊은 건군절에 즈음하여 다함없는 흠모심과 충정의 마음들이 끝없이 흐르는 만수대언덕,

선군조선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장쾌하게 바라보게 하는 만수대언덕에 오르면 대동강너머로 웅장한 당창건기념탑이 한눈에 안겨온다.

생각도 뜨거워진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우리 수령님 쌓으신 영원불멸할 업적이 저 기념탑에 얼마나 뜨겁게 어려있는것인가.

전쟁에서 참모부를 떠난 군대의 승리를 생각할수 없듯이 당의 령도를 떠난 혁명투쟁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생결단의 언덕을 무수히 넘는 행로에서 오직 승리의 력사만을 광휘롭게 아로새겨온 불패의 조선로동당!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온 혁명의 기관차, 조선로동당의 자랑스러운 로정은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것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깊은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난 당입니다. 우리 당이 창건된것은 1945년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주체34(1945)년 10월에 창건되였지만 그 뿌리는 얼마나 깊고 억센것인가.

항일의 불길속에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시던 20대의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모습이 선히 안겨온다.

간고한 항일의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결성하신것은 필승의 신념과 담력,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업적이다.

1930년대 전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시였다. 그것이 바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오는 문제였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통일적당지도기관으로서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내오시였다.

그것은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유격대의 당조직들은 물론 지방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강력한 당지도기관으로서 부대안의 각급 당조직들과 지방당조직들까지 모두 장악지도하는 통일적당지도기관, 최고령도기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는 항일무장투쟁과 당창건준비,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과 대중투쟁 등 전반적조선혁명을 령도하는 조선혁명의 참모부로서 항일무장투쟁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 그것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당의 창건과 그 강화발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잊을수 없다.

우리 수령님께서 걸으신 당건설의 길은 전인미답의 길이였다.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던 시기 우리 나라에는 새형의 당을 창건하기 위한 그 어떤 토대도 마련된것이 없었다. 당건설을 위한 하나의 로선과 방침으로부터 핵심골간을 키우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새롭게 탐구하고 해결해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 길은 실로 빈터우에서 모든것을 해결해나가야 하는 생소한 길이였다.

우리 나라에서 혁명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독창적인 길을 따라 자주적으로 진행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조선혁명을 향도해나갈 혁명의 전위조직을 내올것을 구상하시고 주체15(1926)년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였다.

《ㅌ.ㄷ》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으며 우리 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점이였다.

《ㅌ.ㄷ》의 결성으로 우리 당의 뿌리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형의 첫 당조직을 내오시였다.

오늘도 첫 당조직을 무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열정에 넘친 모습이 우리의 눈앞에 어려오고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첫 세대 당원들이 터치던 만세의 환호성이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다.

진명학교의 수수한 교실에서 그리도 간절히 념원하던 첫 당조직의 결성을 두고 기쁨에 넘쳐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례총이라도 쏘고싶다고 하면서 격정을 터치던 첫 당조직—건설동지사의 성원들,

조국과 혁명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첫 당조직이다.

첫 당조직을 모체로 하여 얼마나 많은 기층당조직들이 고고성을 터치였던가.

얼마후에 온성일대의 혁명조직 핵심성원들로 당조직이 무어졌으며 짧은 시일안에 무장대오와 두만강연안의 동만일대, 북부국경일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다.

자주적인 당건설을 위한 조선혁명가들의 투쟁은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더욱 과감히 전진하게 되였으며 그 나날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결성되게 된것이다.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가 통일적령도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각급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무장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다.

돌이켜보면 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은 얼마나 더욱 활발히 벌어졌던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를 튼튼히 꾸리는데 주력하면서 간도 각 현의 당조직들과의 밀접한 련계속에서 우리 당조직을 확대해나갔으며 앞으로 국내에 당조직을 대대적으로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핵심들을 육성하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우리의 항일혁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력사의 분기점들마다에는 혁명적당창건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건설과 그 강화발전의 튼튼한 밑천으로, 우리 혁명의 억센 뿌리로 되는 위대한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새세대 혁명가들을 당창건의 핵심골간으로 억세게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업적을 우리는 정녕 잊지 못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조직건설에서 이룩하신 이 빛나는 성과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백두산을 타고앉은 후 압록강과 두만강연안지구에서 거둔 군사작전들에서의 승리에 못지 않은 거대한 정치적승리였다.

이 승리는 조국해방을 앞당겨오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되였으며 자주적인 당창건위업을 완성할수 있는 강유력한 기초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이 귀중한 업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조국이 해방되자 즉시에 창건될수 있었고 창건 첫날부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우에 선 위력한 당으로 자기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감회깊이 더듬어보는 천만군민은 주체의 혈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갈 드높은 결의로 충만되여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우리 당의 초석이 마련되던 나날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오직 당의 령도따라 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갈것이다.

당창건기념탑의 원형띠에 새겨진 구호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천만의 철의 대오의 가슴에 새겨주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과감히 고무추동한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본사기자 김 철 혁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의 핵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건군절을 맞이하게 되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우리 천만군민은 인민군대를 영원한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길에 쌓으신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할 혁명업적을 숭엄히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당을 견결히 옹위하고 당의 령도에 무한히 충실하며 당의 위업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일찌기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첫 자욱을 새기시던 그때에 벌써 당앞에 지니고있는 인민군대의 사명을 깊이 새겨주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것은 우리 인민군대의 기본사명이며 영광스러운 투쟁전통의 핵이다!

이런 투철한 신념으로 주체49(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였을 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혁명적무장력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성격과 사명, 투쟁전통을 보다 새로운 높이에서 완벽하게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1970년대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 선포되기 전야에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위업도 인민군대를 믿고 하려고 한다고 하시며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난날에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수령님의 군대, 당의 군대인 인민군대가 앞장서라고 믿음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듯싶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크나큰 믿음과 기대에 떠받들려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었다.

당의 령도는 군대의 생명, 군대는 당을 떠받들고있는 가장 믿음직한 기둥!

우리 조국의 선군혁명력사와 더불어 빛발친 이 철의 진리가 천만의 심장을 울리고있다.

우리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때에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

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군대는 힘있는 전투부대로 될수 없다고, 당이 없이 군대만으로는 혁명전쟁에서 승리할수 없다고 하시며 군대강화에 미치는 당의 주도적이며 향도적인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신 우리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어 전군에 당의 령군체계가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서 선군혁명의 맨 앞장에서 조선로동당의 기발을 높이 들고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였다.

그 현명한 령도로 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주력군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방식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게 되였던것이다.

당의 군대, 바로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슬하에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이 있으며 그 불패성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우리 인민군대는 영원히 당의 군대로 그 존엄과 위용을 떨쳐갈것이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우리 당의 억센 뿌리, 영원한 피줄기

혁명이 심화될수록

주체89(2000)년 3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시였다.

백두의 사나운 눈보라길을 헤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가 뜨겁게 깃들어있는 백두산지구의 여러 혁명전적지들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안광은 근엄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빛내여가실 의지를 안으시고 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억센 뿌리이며 만년초석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장구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혁명전통을 영원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며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야 하며 혁명이 심화될수록 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야 한다는 고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정녕 피어린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영원한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다.

세대는 바뀌여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으시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는것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량강도책임일군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에도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이라고, 우리 당이 계승하여야 할 혁명전통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전통이라고 절절히 가르치시였다.

뜻깊은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과 투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이 땅에 세대가 열백번 바뀌여도 영원히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여갈 철석의 의지가 세차게 불타올랐다.

삼지연이 전하는 사연

주체65(1976)년 7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비롯한 삼지연대기념비의 터전을 잡아주시기 위해 삼지연못가지구를 찾아주시였을 때의 일이다.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동상을 모실 자리를 어디에 정하였는가고 물으시였다.

못건너편에 정하려고 한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왜 수령님의 동상을 못앞에 모시지 않고 못건너편에 모시려 하는가고 다시금 물으시였다.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못건너편에 모셔야 주변의 자연풍치를 더 잘 부각시켜줄수 있을것 같다고 그이께 말씀드렸다.

그러한 일군들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기본사적지는 수령님께서 사진을 찍으신 봇나무가 있는 못가이다, 수령님께서 1939년 5월에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거느리시고 여기에 들리시여 휴식하신 유서깊은 장소도 바로 봇나무가 있는 못가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가르치심에는 대기념비를 사적지에 접근시켜 세움으로써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사실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도록 하시려는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었다.

전 광 남

길이 빛나라 혁명렬사릉이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절세위인들의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의리의 결정체이며 혁명전사의 삶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한다는것을 보여주는 력사의 대기념비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렬사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신임의 표시이고 선물이며 그들의 투쟁업적에 대한 높은 평가의 상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대기념비로 빛내여주시였다.

주체74(1985)년 10월 4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으시고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정신과 위훈을 뜨겁게 회억하시였다.

절세위인들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은 조선로동당창건 40돐을 맞는 주체74(1985)년 10월에 개건확장되였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과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항일전에 용약 떨쳐나 영웅적위훈을 세운 혁명렬사들의 반신상이 세워져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이 새겨져있다.

《항일혁명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우리 당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있을것이다.

김 일 성

1985.10.10.》

대성산혁명렬사릉입구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친필로 새겨진 《혁명렬사릉》이라는 현판이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주작봉에서 내려다보면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이 한눈에 안겨오는데 마치 렬사들이 두팔을 벌려 금수산기념궁전을 호위하는것 같다고, 이제는 어버이수령님과 전우들이 영원히 같이 있는것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수령과 전사들의 혈연적뉴대는 생전이나 사후나 같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사들이 생각날 때마다 금수산의사당(당시)의 전망대에 오르시여 혁명렬사릉을 바라보군 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지난날 수령님을 호위하던 항일혁명투사들이 오늘도 가까이에서 호위하고있으며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호위속에서 영생하고계신다고 교시하시였다.

또 한분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대성산혁명렬사릉은 더욱 빛나고있다.

대성산혁명렬사릉은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셔야 혁명전사들의 삶도 행복도 영광도 있고 찬란한 미래도 있다는 고귀한 진리를 천만의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주며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인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에서 연설

【쟈까르따 4월 22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되고있는 아시아아프리카수뇌자회의에서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연설하였다.

김영남동지는 60년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는 지난날 력사밖에 밀려났던 두 대륙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당당히 개척해나가도록 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 력사적인 회합이였다고 하면서 반둥정신은 자주적인 세계를 건설하려는 아시아,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전진을 고무하여주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영남동지는 반둥회의 60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지금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반둥회의 1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여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신 력사적사실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지난날 식민지지배와 예속의 희생물로 되여온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였다.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업적은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아시아, 아프리카나라 인민들과의 친선의 뉴대와 련대성을 강화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일관하다.

이러한 대외정책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대표단은 이번 수뇌자회의 주제로 《세계평화와 번영촉진을 위한 남남협조강화》가 선정된것이 전반적인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의 지향과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김영남동지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각종 미명하에 감행되고있는 일부 특정국가들의 무력침공과 군사적위협, 제재와 압력, 온갖 형태의 내정간섭 그리고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와 《세계화》의 부정적영향은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전면적인 협조와 뉴대를 강화해나감으로써 공동의 노력으로 평화와 번영을 마련할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본 회의가 주목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무엇보다먼저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배격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것이다.

온갖 형태의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고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것은 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동반자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은 식민주의와 지배주의,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호상 지지협력하면서 공동투쟁을 벌려온 훌륭한 력사적전통과 경험을 가지고있다.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은 반둥정신을 구현하여 전통적인 단결과 련대성의 위력으로 지배세력들의 강권과 전횡을 배격하며 두 대륙에 공고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두 대륙사이에 전면적인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을 확고한 정책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것이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련대성에 기초한 집단적자력갱생운동으로서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여러 분야에 걸쳐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두 대륙 인민들은 력사적인 처지와 사회경제발전수준의 공통성으로 하여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과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은 남남협조를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유일한 방도로 확고히 틀어쥐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전면적인 협조를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세계화》의 부정적영향에 집단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것이다.

김영남동지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오늘 조선반도는 의연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의 하나로 되고있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격화되고있는 긴장상태는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은 물론 세계 모든 나라들의 커다란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대결광증으로 말미암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최악의 상태가 지속되고있다.

미국은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벌써 남조선전역에서 두차례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해마다 수십만의 병력과 핵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불의에 침공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에 광분하고있다.

한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한 인권향유실상은 외면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인권》소동과 제재, 압력에 매달리고있다.

세계에서 핵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있고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운 유일한 국가이며 세계최대의 인권불모지로 공인된 미국이 핵포기와 《인권》에 대해 운운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고 위선이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침략위협과 정치경제적압박을 통해 우리의 평화적발전을 억제하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며 나아가서 저들의 세계제패전략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속심을 추구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평화적환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귀중한 평화는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책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방지되고 평화가 지켜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선군정치로 억척같이 다져온 핵무력을 포함한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기때문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오직 자기 힘이 강해야만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자주화위업도 추진할수 있으며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패의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강성번영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창조와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문명국건설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켜 새로운 아시아아프리카전략적동반자관계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하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도 달라졌으나 우리 민족은 아직도 분렬의 고통을 뼈아프게 체험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북과 남이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갈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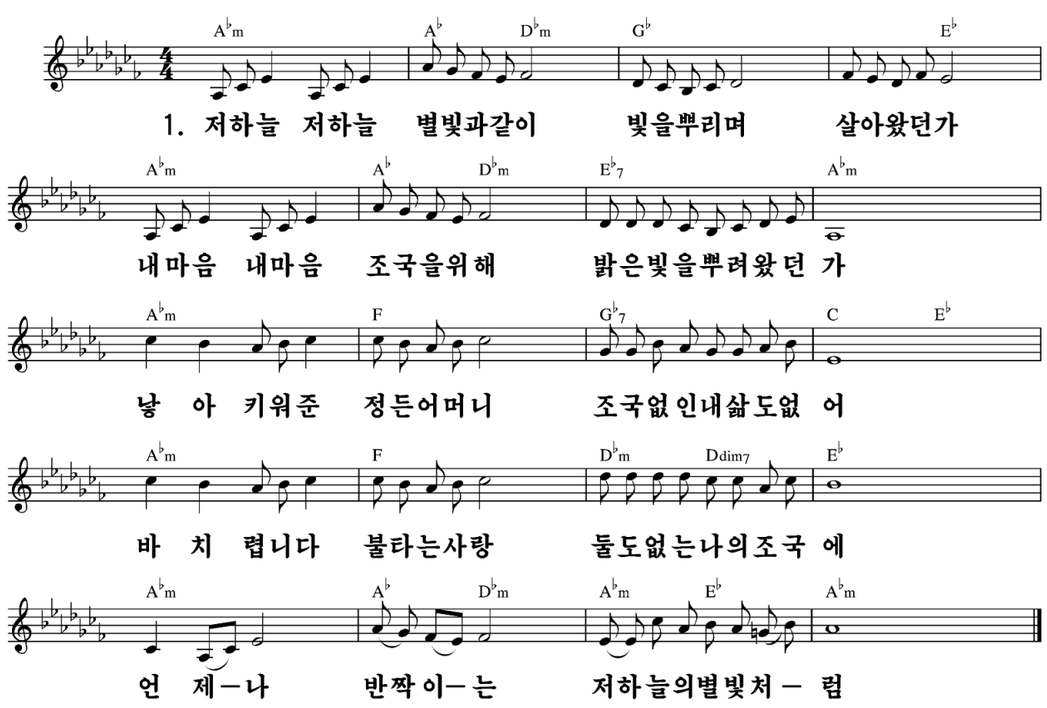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모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으나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대결을 일삼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적자세로 하여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의 앞길에는 의연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있다.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난관이 가로놓여있지만 우리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것이며 우리 조국땅우에 반드시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김영남동지는 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아시아, 아프리카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것이라고 확언하였다.

내 마 음

작사 문춘심
작곡 황진영



2. 흐르는 흐르는 강물과 같이 험한 굽이도 두렴없던가
내 마음 내 마음 조국을 위해 주저없이 달려왔던가
꿈을 꽃펴준 행복의 요람 조국없인 가정도 없어
바치렵니다 더운 피와 땀 번영하는 나의 조국에
언제나 쉬임없이 굽이치는 강물처럼

3. 땅속에 땅속에 묻혀있어도 변함이 없는 보석빛처럼
내 한생 내 한생 애국의 마음 아름답게 간직하리라
생을 빛내준 위대한 그 품 조국없인 미래도 없어
바치렵니다 나의 모든것 존엄높은 나의 조국에
한생을 영원히 내 진정 바치렵니다

주 체 사 상 탑 봉 화 를 바 라 보 며

봄빛짙은 4월이다.

태양은 오늘도 봄날의 따스한 빛발을 함뿍 뿌린다.

새 학년도를 맞은 학교들에서 사랑의 새 교복을 타입은 학생들의 배움의 글소리가 랑랑히 울려퍼진다. 봄을 맞아 더욱 활기를 띤 건설장들은 위훈의 구슬땀으로 젖어있다. 거리와 마을, 일터들이 아름답게 단장되였다.

사람들의 얼굴마다에는 희열이 넘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 창조성이 활짝 꽃피여난 영원한 조선의 봄이다.

하기에 뜻깊은 명절들과 더불어 화창한 봄을 맞을 때면 천만군민의 마음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속에 평양의 하늘높이 솟아 빛나는 주체사상탑으로 더더욱 뜨겁게 달리고있는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다.》

주체의 횃불을 떠이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주체사상탑!

주체사상탑의 봉화를 바라보느라면 문득 인간에게 처음으로 불을 가져다주었다는 신화가 떠오른다. 인간생활에서 불의 귀중함을 인식하게 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역시 신화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체라는 영원한 사상의 불을 가져다주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인간이 비로소 자기를 옳바로 알게 해주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해주시였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우리 수령님.

생각도 깊어진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망국민의 불행을 하소하던 민족, 눈물로 대지에 씨앗을 뿌려야 했고 싹은 움터도 설음으로 응어리진 가슴엔 환희가 깃들수 없었던 그 세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고 피타게 절규하였던 인민이다.

봉건의 수레가 삐걱거리던 세기적락후와 빈궁의 땅, 침략과 략탈의 대포앞에 초라한 화승총과 창으로 맞섰던 처절한 비극우에 과연 어떤 기적이 펼쳐졌는가.

지난날 력사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이 시대와 력사의 중심에 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조국은 위대한 사상, 튼튼한 자립경제, 고상한 문화로 자랑떨치고 이 세상에 맞설자 없는 백두산혁명강군을 가진 불패의 강국으로 솟아올랐다.

우리는 다시한번 주체사상탑봉화를 바라본다.

그러면 눈앞에 어려온다.

주체의 빛발이 누리를 환히 밝히던 력사의 그 나날이 우리의 가슴속에 격랑을 일으키며 파도쳐온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다. 위인만이 위대한 사상을 창시할수 있다.

새시대의 요구를 누구보다 먼저 명철하게 꿰뚫어보시고 새로운 혁명사상을 창시하는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벌써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의거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모색해오신 위대한 수령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시며 혁명의 새로운 원리와 방식을 찾기 위하여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오늘도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 우리 나라 혁명운동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시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심각히 느끼시였다.

이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와 조선혁명의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지도사상과 지도리론의 창시를 요구하는 인민의 열망과 의사를 반영하여 력사적인 카룬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주체적인 로선을 밝히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탄생을 선포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사상창시, 그것은 암흑의 세기를 끝장내고 시대와 인류앞에 자주시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포성이였고 새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의 탄생을 알리는 력사의 고고지성이였다.

과연 력사에 주체사상의 창시와 같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시대와 력사발전을 위하여 그처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사적 발견이 있었던가. 바로 그래서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시대와 혁명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하며 영원히 타오르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들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새로운 력사적시대를 펼쳤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세기적변혁을 가져왔다.

사람들이여,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하늘높이 솟아 빛나는 주체사상탑을 바라보시라.

력사상 처음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자주시대를 펼쳐놓으신 주체의 영원한 태양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사상칭송의 탑앞에 서보시라.

불멸의 기치를 안고 자랑찬 승리만을 새겨온 력사의 나날이 더듬어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신념으로 포악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였고 준엄한 3년간의 반미대전에서도 력사적승리를 떨치시였다.

주체사상의 기치아래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고 건당, 건국, 건군위업을 실현하시였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시였다.

복잡다단한 혁명의 년대마다에 엄혹한 시련이 겹쌓였어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자주의 기치높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민족의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친것도 다 주체사상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는 긍지높이 말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혁명적당과 무적의 강군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모진 시련을 파감히 헤쳐나갈수 있었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쳐갈기고 백전백승의 길만을 걸어올수 있은것이다.

그렇다.

인류력사에 수많은 위인들과 명인들이 배출되였지만 우리 수령님처럼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나라를 주체사상의 조국,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리게 하신 희세의 령장, 전설적영웅은 일찌기 없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과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고있으며 20세기를 《김일성세기》로 부르고있는것이다.

태양의 존함과 함께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누리에 존엄떨치고있는 내 나라, 내 조국.

대동강반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주체사상탑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주체의 길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으며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대오의 앞길을 환히 비쳐주고 있다.

본사기자

영 웅 적 조 선 인 민 군 창 건 8 3 돐 에 즈 음 하 여

인 민 무 력 부 에 서 연 회 마 련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에서는 23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주조 무관단성원들과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륙군대장 현영철동지와 렴철성, 노광철 등 조선인민군 장령, 군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원 군 을 최 대 의 애 국 으 로 여 기 고

신 의 주 시 백 사 동 4 7 인 민 반 원 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신의주시 백사동 47인민반원들도 있다.

지난 2월 어느날 인민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았을 때 인민반장 백정옥동무는 이제 며칠 있으면 2월 8일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반에서도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진행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머리를 뗀 그는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며 총대가 강해야 조국의 부강번영과 가정의 행복도 있다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에 황영옥, 강석옥, 김영옥동무들을 비롯한 후방가족들이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이자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춘시절을 빛내이고있는 자식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면서 원군사업에 앞장설 결의들을 다지였다.

그러자 인민반원들도 여러가지 물자들을 마련하겠다고 적극 호응해나섰다.

이어 안명희, 양기복, 김영보, 김명애세대들에서도 군인들을 원호하는 사업에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면서 성심성의껏 원호물자를 마련하겠다고 결의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원군사업에 온 인민반원들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를 잘 받들자면 총대가 든든해야 한다고 하면서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진심을 바치였다.

리영남, 김명희, 최성희동무를 비롯한 백사동사무소의 일군들도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원호사업에 떨쳐나선 이곳 인민반원들의 애국적소행을 적극 지지해주고 떠밀어주었다.

그리하여 이곳 인민반에서는 불과 이틀동안에 군인생활에 필요한 15종에 수백점에 달하는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초소의 군인들에게 보내줄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길에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는 길이 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신들의 행복이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있기에 이곳 인민반원들은 앞으로도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더 잘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송 창 윤

혁 명 적 량 만 에 넘 쳐

토산군 백화협동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83돐에 즈음한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들이 22일과 23일에 진행되였다.

직맹, 농근맹일군들, 근로자들, 동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는 주체적인 혁명무력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필승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경축공연무대를 펼치였다.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로 막을 올린 무대에는 3인시 《불멸의 선군업적 길이 전하리》, 노래묶음 《초소에 수령님 오셨네》, 《자랑하세 천하제일명장》, 《우리 원수님》, 녀성독창과 방창 《증대는 정든 고향집》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가려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각지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맑고 깨끗한 충정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순결한 량심을 바치는 고상한 미풍들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오직 우리 당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순결한 마음으로 당을 믿고 따르며 당이 가리키는 한길로 억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황해북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주체의 최고성지에 수종이 좋은 꽃나무와 관리도구들을 마련하여 보내주는 사업을 정상화하고 있다.

2006년 태양절을 맞으며 100여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를 금수산기념궁전(당시) 수목원에 보내준 때로부터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수령영생의 대기념비로 길이 빛내이는 사업에 순결한 도덕의리심을 바쳐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그들이 지난 10년간 30여차에 걸쳐 주체의 최고성지에 보내준 1만 4 700여그루의 나무모와 근 72만개의 꽃뿌리, 430여kg의 꽃씨, 108만 9 900여포기의 백도라지, 30만여점의 관리도구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려는 순결한 마음이 어리여있다.

라진항 로동자인 라원철동무는 절세의 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지난 10여년간 붉은색나리꽃을 정성껏 키워 태양의 성지에 보내주었다.

15년전 7월 혁명전적지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산기슭에 아름답게 피여난 붉은색나리꽃을 보게 된 그는 이 꽃을 많이 키워 태양의 성지에 보내줄것을 결심하고 집뜨락에 꽃을 심고 가꾸기 시작하였다.

지난해 절세의 위인들께 숭고한 경의를 드리기 위해 평양에 올라오는 기회에 그는 성의껏 키운 200여개의 붉은색나리꽃뿌리와 많은 관리도구들을 태양의 성지에 보내주었다.

순천철도분국 순천전철대 김광일동무는 위급한 정황속에서 백두산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보위하였다.

두해전 6월 어느날 퇴근길에 한 살림집에서 화재가 일어난것을 발견한 그는 솟구치는 화염으로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위급한 정황속에서 불붙는 집안에 뛰여들어 절세의 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왔다.

함경남도철도건설려단 리원군철도건설대대 로동자 김송향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주변에 대한 관리사업에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12년전 소년단에 입단하던 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좋은 일을 많이 할 결심을 다진 그는 다음날부터 군소재지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주변에 대한 정성관리사업을 하루일과의 첫 사업으로 진행하였다.

그 나날 수십차에 걸쳐 200여점의 관리도구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몇해전 군소재지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모자이크벽화를 새로 모시는 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매일같이 현장에 달려나가 구슬땀을 바치였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청년동맹원들속에는 해주철도대흥관리부 로동자인 리종철동무도 있다.

몇해전 봄 어느날 태여난지 며칠 되지 않은 부모없는 어린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그는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부모잃은 설음속에 사는 아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안해와 토의하고 아기를 맡아키울 결심을 하였다.

이렇게 젖먹이를 데려다 온갖 정성을 기울이던 그는 그후 웅진군에 출장갔다가 또다시 부모잃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집에 왔다. 그는 선뜻 결심을 내리기 주저하는 안해에게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으로 본분을 다하자고 절절히 말하였다. 이런 고결한 마음과 뜨거운 인간애에 의하여 부모잃은 아이들은 설음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게 되였다.

안주시 덕성고급중학교 소년단지도원 김경애동무는 8년세월을 영예군인의 길동무가 되여 혁명의 꽃을 활짝 피워나가도록 도와주고있다.

청 춘 의 자 서 전 에 새 겨 가 는 고 결 한 량 심

10년전 그는 학교교원들과 함께 영예군인 함성진동무의 집을 처음으로 찾게 되였다. 그때부터 그 영예군인에게 많은 도서와 귀한 약재, 보약, 생활필수품 등을 마련해주었다.

그 나날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하는것이 자기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 그는 부모들과 주변사람들의 축복속에 함성진동무와 한가정을 이루었다. 그는 몇해전부터 부모잃은 어린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학생소년들에 대한 교양사업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 로동자 전은철동무는 잘못 살아온 지난날과 결별하고 말은 일을 잘하여 청년동맹초급일군으로, 혁신자로 자라났다.

일찌기 부모를 잃은 그는 10여년전부터 라남탄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일터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생활하였다.

어느날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그는 잘못 살아온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였고 당조직을 찾아가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겠다고 하면서 618건설돌격대로 탄원하였다. 그는 돌격대에서 생활하는 기간 조직과 집단의 믿음을 자각하고 혁명적으로 단련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였다.

돌격대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청년동맹초급단체 부위원장, 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혁명과업수행과 조직생활에서 동맹원들의 모범이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는 뒤떨어진 한 청년동맹원을 꾸준히 교양하여 년간계획완수자로, 모범청년동맹원으로 자라나도록 하였다. 그렇게 성장한 그 청년은 2012년 8월 청년절경축행사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였다. 이 나날 초급단체는 청년전위2중모범초급단체칭호를 쟁취하였고 초급단체위원장인 전은철동무는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속에서 발휘되고있는 미풍들은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자라나고있는 우리 청년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의 발현이다.

청춘의 자서전에 불타는 충정과 순결한 량심을 새겨가는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전도가 끝없이 양양한것이다.

본사기자 김 승 표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 축 공 연 진 행

첫 시기에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이고 혁명의 승리라는 선군의 철리를 밝히시고 백두의 수림속에서 주체형의 첫 혁명적무장력을 창건하시였으며 총대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강대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해오는 나날에 만능의 주체전법과 풍부한 전투경험을 가진 강위력한 혁명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행로를 보여주는 회고록선동 《병기창의 메아리》, 혼성중창 《근위부대 자랑가》를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출연자들은 남성독창 《우리의 총대》, 트럼베트와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 등의 종목들에서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위업수행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사회주의수호전에서 련전련승을 떨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에 대하여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전체 출연자들은 시와 합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하여주신 백승의 전통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직맹일군들과 로동계급, 직맹원들의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락랑구역 류소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진행된 농근맹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무대에는 시와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조선의 장군》, 금관2중주를 위한 경음악 《병사들은 대답했네》, 재담 《경쟁열풍》, 선동시극 《잊지 말자 그날의 소방울소리》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조선인민군이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의 《무기만능론》을 사상만능론으로 타승하고 우리 식의 우월한 군사전법과 전략전술로 적들에게 패배를 안기며 백승의 전통을 창조해온데 대하여 노래하였다.

백두밀림에서 창건된 때로부터 장장 80여성상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혁명무력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차넘치는 노래련곡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땅크병의 노래》, 《조국의 바다지켜 영생하리라》, 《비행사의 노래》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민요련곡 《철령아래 사과바다》, 《바다 만풍가》에서 출연자들은 인민의 꿈과 리상이 아름답게 꽃펴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흥겨운 노래장단에 맞추어 훌륭히 형상하였다.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충정의 마음을 반영한 남성독창과 녀성방창 《우리 원수님》, 설화와 남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이 공연무대에 펼쳐졌다.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진두에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올해 농사를 잘 지어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농업근로자들의 열의가 차넘친 공연은 합창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로 끝났다.

민족의 버림을 받은 역적패당은 멸망의 함정에서 헤여날수 없다

통채로 폭파될 위기에 놓인 청와대

각계의 비난거리, 해외도망행각

성완종사건이 터져나오게 된 동기는 그가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당한 극도의 배신이다. 성완종은 지금껏 숱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섬겨바친 자기에게 부패혐의를 들씌워 제거하려는 현 피뢰집권세력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수법으로 복수하였다.

며칠전 오래동안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의 측근으로 있은 한 인물은 그가 죽기 이틀전날 자기와 만나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당시 현 집권자의 선거대책본부의 조직총괄본부장을 한 《새누리당》 의원 홍문종에게 2억원을 준것을 비롯하여 수십억원을 이 당에 선거자금으로 바쳤는데 그 덕을 톡톡히 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자기한테 상은 못 줄망정 은혜를 원쑤로 갚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다고 까밝혔다.

이런 배신의 진창속을 방황하던 성완종은 끝내 자살의 길을 택하게 되였다.

하지만 그는 그냥 죽지 않았다. 눈곱자기만 한 의리도 없이 자기를 죽음에로 몰아가는 왕도적들을 고발했다. 그의 폭로에 의해 현 피뢰국무총리, 청와대의 전, 현직 비서실장 등 8명이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모두가 현 집권자의 핵심측근들이다. 결국 그 무슨 《도덕성》과 《청렴》을 떠들며 《부패와의 전쟁》을 제창하던 현 피뢰집권세력의 도덕적부패성은 낱낱이 드러났다.

성완종사건은 이전 집권세력인 리명박패당과 현 집권세력사이의 추악한 권력싸움의 산물이기도 하다. 보수세력내의 친리계와 친박계사이의 뿌리깊은 갈등의 애매한 희생물이 바로 성완종인것이다. 그야말로 두꺼비싸움에 파리가 치인 격이다.

리명박역도가 《회고록》이라는데서 자기를 심히 자극한데 대해 부쩍 화가 난 현 집권자는 검찰을 내몰아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전 《정권》의 《자원외교》라는데 대한 조사놀음을 벌리였다. 그 과정에 현 집권세력은 물론 리명박패와도 깊이 련결되였던 성완종이 걸려들게 되였다. 검찰측은 그를 세금을 떼먹은 범죄자로 몰며 끈질긴 조사를 들이댔다. 거기에 더해 가족들까지 조사당해야 하는 현실에 강한 정신적압박감을 느낀 성완종은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청와대에 항거해나섰다. 리명박에게 분풀이도 할겸 민심도 끄당겨보려고 《부패와의 전쟁》을 요란하게 벌린 현 집권세력인데 성완종을 서뿔리 건드린 결과 제 도끼에 제발등이 찍힌 격이 되였다.

지금 피뢰집권세력내부에서는 《성완종이 청와대의 심장을 겨누었다.》, 《죽은 성완종이 산 8인을 잡고있다.》, 《집권이후 최대위기》라는 아우성이 상가집 곡성처럼 터져나오고있다. 이런 속에 성완종에 의해 폭로된자들이 급해맞은 나머지 언론보도를 통해 하루가 멀다하게 말을 바꾸고있는데 그로 하여 오히려 범죄의혹들이 늘어나 보수패당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있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그들이 죽은 성완종과 사실상 대질심문을 하는 처지가 되였다고 야유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현 피뢰집권자라는것이 민심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성완종은 자살하기 하루전인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후보선출경쟁때 현 집권자의 진영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하였던 허태렬의 안내로 박근혜를 만났고 이후 그의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였다고 증언하였다.

현 피뢰집권자가 청와대안방에 들어앉은 후 비서실장직을 차지한 3명이 모두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들이라는 사실도 집권자에게 여론의 눈총이 쏠리게 하는 리유의 하나이다. 허태렬은 박근혜의 집권을 위해 맹활약한 그의 초대비서실장이였고 그뒤를 이은 김기춘도 《기춘대원군》으로 불리우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자이다. 현 청와대 비서실장 리병기도 정보원장출신으로서 집권자의 최측근이다. 최근에 폭로된 사실이지만 성완종이 찔러준 수십억대의 검은돈은 대부분 현 집권자의 선거자금주머니에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보다싶이 사건의 요소요소들은 모두 현 집권자와 련결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완종사건이 자기와는 상관없는듯이 능청을 부리면서 그 무슨 《성역없는 수사》에 대해 횡설수설하였다. 이것은 성완종사건이 자기의 《대통령》선거자금 문제에로 확대되고있는데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핵심측근일지라도 부패범죄가 확인될 경우 《꼬리자르기》를 서슴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것이라고 언론들은 분석하고있다.

집권자의 뻔뻔스러운 처사에 격분한 남조선인민들은 저저마다 《특등수사대상은 〈대통령〉》이라고 들고일어나고있다. 사건이 터진 후 집권자의 지지률은 무려 5%나 떨어졌으며 특히 그의 정치터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상북도지역의 보수지지층속에서 이미 근 15%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떨어져나갔다고 한다.

성완종사건의 기본대상인 《새누리당》도 휘청거리고있다. 이 사건으로 지난 2002년 《차떼기당》의 오명을 썼던 《새누리당》이 부패의 썩은 늪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민중의 비난이 고조되고있다. 새정치민주련합의 한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차떼기〉 녹이 사라진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꾸어 〈새누리당〉을 뒤덮고있다.》고 하였으며 다른 최고위원은 성완종사건으로 《새누리당》에는 숨기고싶어도 숨길수 없는 《차떼기뢰물유전자》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고 하면서 민중은 또다시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이런 속에 4월 29일에 있게 될 《국회》 의원재보충선거에서 이 도적당이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남조선언론들이 성완종이 죽기 전에 보다 치명적인 《비밀무기》를 준비해두었다고 보도하고있어 보수패당을 바싹 긴장시키고있다. 한 언론은 현 《정권》과 전쟁을 벌리기로 결심한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에 정치인들에게 준 비밀자금의 조성경위와 전달방법, 자기 주장을 립증하는 증거물들을 담은 문서를 측근들에게 보관시켰다고 하면서 그들이 회장의 장례를 치른 이후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것이라고 전하였다. 그 《비밀무기》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이며 청와대의 어느 급소에 치명상을 안기게 되겠는지는 두고보아야 할노릇이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성완종사건으로 현 피뢰보수정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였으며 결과 통채로 폭파될수도 있다는것이다. 성완종으로부터 3 000만원을 받아먹은것으로 알려진 피뢰국무총리 리완구가 한동안 버티다가 더는 견디지 못하고 며칠전 사퇴의사를 표명한것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미국의 AP통신과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도 성완종사건내용을 상세히 전하면서 현 남조선집권자가 헤여나기 어려운 정치적위기에 직면해있다고 평하였다.

본사기자 리 효 진

미운 계집이 으스름 달밤에 삿갓 쓰고 나선다고 지금 도처에서 민심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청와대안방주인이 또다시 해피한짓을 하여 각계의 비난거리로 되고있다. 그가 부디부디 《세월》호참사 1년이 되는 날에 부산을 떨며 해외나들이에 나선것이다.

남조선집권자는 지난 16일 《세월》호참사 희생자유가족들의 아픔이 통곡의 바다를 이루고 남조선인민들모두가 사건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는데도 거기에는 귀를 틀어막고 아메리카나라들에 대한 행각길에 올랐다. 이것을 놓고 남조선 각계는 다시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다.

《1년전 오늘도 〈대통령〉은 없었다. 〈세월〉호참사 1년이 된 오늘도 〈대통령〉은 없다. 이런 〈대통령〉이 과연 필요한가? 누가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눈물흘리게 했는지 박근혜는 정녕 모르는가?》

사고가 일어난지 1년이 넘은 오늘까지도 바다물속에 잠겨 부모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있는 불쌍한 자식들을 찾고 부르며 가슴에 재만 남은 유가족들은 집권자의 패륜행위에 치를 떨며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였다.

피뢰집권자가 16일 부랴부랴 해외행각에 나선것은 성완종 부정부패사건으로 온 남조선이 벌둥지 쑤셔놓은것처럼 되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한것으로 하여 더우기 각계의 비난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상 류례없는 권력형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지어 현 집권자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내외언론들과 전문가들은 《남조선정치권에 엄청난 파피력이 몰아치고있다.》,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붕괴될수도 있다.》고 평하고있다.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 패거리들속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 망하고만다는 아우성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런 속에 피뢰집권자가 급기야 해외행각의 치마바람을 일군것은 그가 격앙되는 민중의 분노앞에 어쩔바를 몰라하며 극도의 혼란과 위기를 모면할 구멍수를 찾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해외도망행각으로 여론의 뭇매를 피하고 악정과 범죄, 독재로 얼룩진 더러운 몸뚱아리를 가리우며 위기수습을 위한 시간을 얻어보자는것이 그의 너절한 타산인것이다.

《새누리당》 패거리들도 집권자가 해외행각에 나선것을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써먹고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부정부패사건의 주요장본인인 현 피뢰국무총리 리완구의 사퇴결의안을 제출하려는 야당에 대해 집권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억지를 부린것이다.

하지만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멘다고 집권자의 처사는 오히려 인민들의 격분을 더욱 폭발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특대형 범죄행위가 터졌는데 집권자가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해외에 나가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해외로 도망가고 〈총리〉는 조사받고》, 《만신창이 된 국정, 정법이 없다.》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그칠새 없다. 한 언론은 《민중을 버리고 〈대통령〉만 탈출했다. 〈대통령〉이 민중을 버렸다면 민중도 그를 버릴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한 인터네트가입자는 집권자가 도피성해외행각에 나섰다고 비난하면서 이제는 남조선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쌍욕을 퍼부었다.

그렇다.

남조선집권자가 아무리 잔꾀를 부리여도 증오에 찬 민심의 눈총을 피할수 없다.

보수집권세력이 현 사태를 결코 무난히 넘길수 없으며 독재와 전횡, 부정부패로 남조선정치를 개판으로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이 민심의 한결같은 평이다.

본사기자 김 향 미

부정부패로 악취풍기는 반역패당

최근 피뢰집권층의 부정부패사건이 또다시 드러나 남조선 각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9일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이 자기가 현 피뢰집권자의 측근들에게 수많은 정치자금을 섬겨바친데 대해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유서에는 박근혜의 제일측근들로 알려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들인 허태렬과 김기춘, 현 비서실장 리병기, 피뢰국무총리 리완구를 비롯한 8명이 여러 계기들에 성완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뜯어낸 사실이 밝혀져있다.

이러한 내용은 성완종이 자살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기자회견을 한 사실을 통해서도 더욱 명백히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근혜를 뒤받침하던 허태렬이 성완종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7억원을 넘겨받았다.

그런가 하면 김기춘은 10만 US$를, 경상남도지사인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는 2011년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피뢰국무총리 리완구는 3 000만원을 받아먹었다.

이 사실들이 온 남녘사회를 격분으로 들끓게 하자 리완구를 비롯한 장본인들이 《증거가 나오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느니, 《단 1원이라도 받았다면 정계은퇴를 하겠다.》느니 하며 발뺌하였다.

하지만 성완종이 자살에 앞서 《경향신문》과 기자회견을 진행한 육성록음자료가 공개되여 장본인들을 곤경에 몰아넣었다.

사건을 증명하는 자료는 이밖에 여기저기에서도 터져나오고있다.

경남기업의 재무실태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 7억원이였던 경남기업의 접대비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06년과 2007년 각각 10억원대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후 2011년부터 또다시 해마다 계속 늘어났다 한다.

2007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남기업의 자금 32억원이 100만원단위로 별다른 증거없이 수시로 빼돌려진 사실도 밝혀졌다.

가뜩이나 온 남녘땅에서 《세월》호참사 1년이 되여오도록 그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의 권한마저 빼앗으려는 피뢰패당의 악행에 대한 분노의 함성이 고조되고있을 때 권력층의 부정부패행위까지 드러나 지금 피뢰패당은 그야말로 진창에 나뒹구는 신세가 되였다.

온 남녘땅에 《권력가들의 집단적인 거액뢰물행위가 폭로된 사상초유의 부정부패사건》, 《정치부패가 〈세월〉호침몰로, 대선자금부패가 성완종 전 회장의 비극적최후로 이어졌다.》, 《〈새누리당〉이 또다시 색갈을 바꾸어야 할지 모르겠다.》 등 비난의 목소리가 차넘치고있다.

피뢰패당이 이번 부정부패사건으로 얼마나 혼비백산하였으면 죄악이 폭로된 다음날 해양수산부를 내세워 《〈세월〉호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검토결과를 예정보다 이틀이나 앞당겨 급작스레 발표하며 민심낚기에 나서고 집권자는 도피행각으로 몸을 사렸겠는가.

물고기가 대가리부터 썩듯이 피뢰집권자부터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같은 추문을 안고있으니 그의 측근들 역시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간추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은 더 론할 여지조차 없다.

한쪽에서 실업자, 빈민들이 계속 늘어나 수난과 고통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 권력을 휘둘러 막대한 돈을 긁어들이는 이 부패한 무리의 정치하에서 인민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절대로 담보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조선중앙통신】

특등수사대상은 누구인가

지난 20일 피뢰국무총리 리완구가 끝내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성완종사건의 주요관계자이면서도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뻗대고 그 무슨 《국정공백》을 구실로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안간힘을 쓰던 리완구가 드디여 손을 들고만것이다.

원래 이자는 전 경남기업 회장 성완종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자들의 목록에 자기 이름이 올라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적혀있지 않자 목이 뻣뻣해서 도적놈 개 꾸짖듯 놀아댔었다. 성완종과 《개인적인연도 없고 전혀 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큰소리를 친것이다. 그런데 하루밤새에 정황이 뒤바뀌여졌다. 성완종이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기가 리완구에게 직접 현금 3 000만원을 주었다고 말한 내용을 《경향신문》이 보도한것이다. 《국회》의원재보충선거가 진행되던 지난 2013년 4월 리완구가 성완종으로부터 3 0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이 그후에도 객관적증거와 증언을 통해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로써 그는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신세가 되였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때부터 부정부패경력이 드러나 여론의 비난과 규탄을 받은 리완구는 특대형권력형부정부패사건인 성완종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성완종은 자살하기 전에 부정부패로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소리지르고있다고 하면서 리완구와 같은 사람은 부패척결의 《1호대상》이라고 절규하였다. 그는 자기에 대한 검찰수사가 리완구와 청와대의 작품이라고 하면서 둘이 짝자꿍이하여 자기를 모해하려고 검찰수사를 벌리고있는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이 보도한데 의하면 리완구가 얼마전 부패척결에 대한 《대국민담화》라는것을 발표하고 그후 검찰이 성완종과 경남기업에 대한 수사에 나선것은 현 피뢰집권자의 추동에 의한것이였다.

리완구가 성완종과 전혀 인연이 없으며 그로부터 돈을 받은적이 없다고 강변하였지만 드러난 증거들이 너무도 명백하고 비난여론이 너무도 강해 아무리 낯가죽이 두터운 그도 종당에는 《국무총리》직 사퇴를 결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문제는 리완구가 물러난다고 하여 민심의 분노가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는것이다. 시궁창의 퇴적물과 같이 쌓이고쌓인 부패한 토양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항간의 목소리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건을 집권자의 《최측근 핵심실세들이 모두 망라된 총체적인 부정부패사건》으로 락인하면서 그 전모를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검찰수사를 지켜보아야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딴전을 피우고있다. 하지만 내심은 몹시 불안하다. 그것은 다음과녁이 다름아닌 청와대 비서실장 리병기, 나아가서 집권자이기때문이다.

성완종이 자살하면서 남긴 목록에는 리병기의 이름도 올라있다. 정계에서 힘깨나 있다는 판료들을 모두 검은돈으로 주무르던 성완종이 현 피뢰집권자의 심복중의 심복인 리병기를 그냥 지나친다는것이 말이나 되겠는가. 그럴수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피뢰정보원장을 해먹던 리병기가 아무리 은밀히 놀았다고 하여도 부패의 썩은내는 결코 숨길수 없는 법이다. 리병기의 범죄혐의가 립증되는것은 리완구의 경우와 같이 시간문제이다.

얼마전 야당인 새정치민주련합의 한 최고위원은 결국은 청와대 비서실장 리병기도 리완구 신세가 될것이라고 하면서 사퇴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는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있는 상태에서 수사선과 보고선의 정점에 있는 범죄혐의자가 자리를 내놓는것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좋을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 집권자의 측근인물들중 《부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성완종사건이 걷잡을수 없이 확대되면서 보수패당은 완전히 얼이 나간 상태이다. 피뢰집권자가 떠들어온 《부패척결과 공직기강확립, 사회구조개혁》타령은 뜨물통에 처박히고말았다.

응당한 귀결이다. 현 피뢰집권세력이야말로 썩은 정치의 소굴이다. 돈으로 정치를 하고 돈으로 판직을 사며 돈으로 지지세력을 긁어모아온것이 바로 현 피뢰집권세력이다. 이 더러운 족속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로 하여 남조선은 날로 더욱 썩어가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은 리완구뿐이 아니라 피뢰집권자와 내각전체가 총사퇴할것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 피뢰집권자는 실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얼마전 그는 성완종사건과 관련하여 제법 큰소리를 치면서 《성역없는 수사》를 떠들어댔다. 그에 대해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렇게 조소하였다.

《정말 〈성역없는 수사〉가 되겠는가? 아니다. 〈성역있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물로 더럽혀진 그릇에 음식을 담은들 어찌 먹을수 있겠는가. 사실상 〈대통령〉도 조사대상이다. 하지만 제몸에 칼을 대는 수사를 해야 할텐데 과연 그럴수 있겠는가. 성완종의 폭로에 의하면 그는 2006년 박근혜가 도이췰란드를 행각할 때 려비로 쓰라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0만US$를 전달했다. 그 돈의 종착지는 박근혜이다. 수수혐의가 있는 사람이 엄정수사를 지시한다는것이 웃기지 않는가.》

최근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성완종죽음의 배후는 리완구가 아니라 현 피뢰집권자이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따라서 성완종사건의 최종해결책은 현 피뢰집권자의 부정부패행위를 낱낱이 조사하고 응당한 징벌을 가하는것이다. 이것을 무시하는 그 어떤 술책도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범죄자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민심에 대한 파렴치한 도전이다.

성완종사건으로 그 무슨 《도덕성》과 《청렴》을 팡고하던 현 피뢰정권의 도덕적부패성은 낱낱이 폭로되였다. 이런 부패한 《정권》이 어찌 오래갈수 있겠는가. 부패 《정권》의 총파멸은 불가피하다.

본사기자 허 영 민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북침핵선제 공격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지난 10일 미국과 피뢰들은 서울에서 있은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의 핵무기소형화기술과 이동식대륙간탄도미싸일기술이 최정점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의한데 따라 14일 워싱톤에서 열린 7차 통합국방협의체회의에서 우리의 핵미싸일과 《대량파괴무기위협》에 대비하는 미국남조선 《억제전략위원회》라는것을 내오기로 합의하였다.

뿐만아니라 우리의 탄도미싸일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는 이른바 《4D작전개념》을 구체화하여 조선반도유사시 《작전계획》수준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떠들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뢰군부호전광들은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이라는것을 통해 조선반도유사시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수단들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내외여론은 《4D작전계획》수립이 미국이 추진하는 미싸일방위체계에 남조선피뢰들이 가담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이 더욱 격화될것이라고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미국과 피뢰들이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억제전략위원회》를 조작하고 《4D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한것은 북침핵선제공격계획을 실전단계에서 더욱 완성하여 임의의 순간에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이다.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미국과 피뢰패당의 위험천만한 북침핵선제공격모의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군사적도발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에 대한 란폭한 도전으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미국과 피뢰패당이 떠드는 《북핵, 미싸일위협》설은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정당화하고 미, 일, 남조선사이의 3각군사결탁을 강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서푼짜리 모략설에 불과하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우리가 아니라 세계최대의 핵무기와 핵타격수단들을 가지고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리고있는 미국으로부터 오고있다.

미국은 최근에도 최신핵전쟁장비개발을 적극 다그치면서 그것을 남조선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방장관은 새로 개발하는 스텔스폭격기와 전투기, 핵잠수함과 구축함을 비롯한 공중 및 해상핵타격수단들과 전자전 및 싸이버전수단들을 남조선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지역들에 우선 배치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여댔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도발자, 교란자는 바로 미국과 피뢰패당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피뢰패당은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더욱 내맡김으로써 식민지주구, 전쟁사환군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드러내였다.

도발의 원흉, 전쟁광신자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해보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저들의 더러운 흉심만을 더욱 드러낼뿐이다.

미국과 피뢰패당이 감히 우리에 대해 선제타격을 운운하는것은 실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그것은 스스로 핵불소나기를 맞는 자멸행위로서 저들의 종국적파멸을 앞당길뿐이다.

우리는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핵선제공격기도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북침핵전쟁도발의 본거지들과 거점들을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해버릴것이다.

남조선 각계층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의 범죄적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강력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4월 23일
평 양

◇ 단 평 ◇

허재비를 괴여올린 주구

미국상전의 더러운 발바닥이나 핥으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피뢰들은 미군을 구세주처럼 여기며 그앞에서 설설 기지만 우리는 그 침략군무리를 파리만큼도 여기지 않는다.

며칠전 피뢰합동참모본부의장 최윤희가 동두천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2사단을 찾아가 《로고》니, 《감사》니 하며 삽살개처럼 낯뜨겁게 아양을 떨어댔다. 가소로운것은 역도가 그 무슨 《세계최강의 전투력》이니, 그 누가 《두려워하는 〈동맹〉의 실체적존재, 상징》이니 하고 미2사단을 잔뜩 피여올리며 《안보협력강화》를 청탁한것이다. 그야말로 가마속의 삶은 소대가리도 폭소를 터칠노릇이 아닐수 없다.

도대체 누가 미2사단을 《두려워》한단 말인가. 역시 최윤희는 미국에 대한 극도의 우상과 숭배심에 빠져 초보적인 판별능력마저 상실한 바보, 천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미2사단은 우리의 첫번째 타격대상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하고 강위력한 불마당질에 미2사단이 과연 씨종자나 남을것 같은가.

하늘소 량반행세를 한다고 최윤희가 그런 허재비같은자들을 믿고 민충이 쑥대에 오른것처럼 기고만장해하며 누구를 어째보려 하니 이런 미련한자를 어찌 조소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심 철 영

4.19정신으로 싸울것을 주장

4.19인민봉기 5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남조선의 4월혁명회, 민주로총, 진보련대 성원들이 19일 서울에서 합동추모식을 가지였다.

추모식에서 발언자들은 4.19봉기가 있은 때로부터 55년이 흘렀다고 하면서 봉기자들의 정신이 무참히 유린당하고있는 오늘의 남조선현실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민주화투쟁, 평화통일운동이 탄압당하고 민중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4.19정신으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민생파탄과 민주파괴를 일삼는 《유신》 독재통치를 반대하는 전국민적인 투쟁을 힘차게 벌리며 분렬 70년의 력사를 끝장내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자

17일 남조선의 서울광장에서 《민주주의국민행동》, 《세월》호참사 범국민대책회의의 주최로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초불집회가 전개되였다.

《세월》호유가족들과 각계층 시민 수천명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오늘의 초불투쟁은 실종자수색과 온전한 선체인양,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하기 위해 조직되였다고 말하였다.

《정부》가 끔찍한 참사를 빚어내고도 진상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은폐하려고만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른바 《시행령안》으로 《세월》호특별법을 위반하고있는 사태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진상규명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에는 들리지 않는가고 절규하였다.

이어 《세월》호참사의 비극적사태를 보여주는 상징의식이 있었다.

집회참가자들은 초불들로 밤하늘을 밝히며 대형참사를 초래하고도 구조는커녕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는 반역《정권》의 무능과 반인민적 악정을 폭로단죄하고 《세월》호참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헤쳐 희생자들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초불투쟁 전개

《세월》호참사 1년을 맞으며 남조선 각지에서 반《정부》투쟁 전개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가

뜻 깊 은 태 양 절 에 즈 음 하 여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보내여왔다

태양절을 축하하여 여러 나라 정당, 정부 성, 기관,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7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외무성, 국방성, 공안성, 공업 및 상업성, 문화, 체육 및 관광성, 조국전선, 사회과학원, 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 호지명박물관, 웰남조선친선협회, 웰남조선친선유치원, 이란이슬람교련합당, 이슬람교혁명 무산자기구, 《로동자의 집》, 국제태권도협회, 먄마 외무성, 상공회의소, 국제무역촉진쎈터, 캄보쟈인민당, 크메르민주당, 문화예술성, 태권도협회,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도이췰란드공산당, 반제연단, 적도기네민주당, 메히꼬로동당, 김일성, 김정일동지회고 메히꼬친우협회, 메히꼬조선친선협회와 캄보쟈 국회의장, 녀성사업상, 공보상, 베닌사회주의당 위원장, 중국 홍콩 중화에네르기기금위원회 비서장, 엠페러그룹 회장, 금려관광사업유한공사 총사장 그리고 김일성김정일기금 공동리사장이 보내여온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이 진정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행사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14일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행사에는 루르데스 쎄르반떼스총서기를 비롯한 기구성원들, 박창율 꾸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 나라 대사관 축하방문

태양절을 축하하여 여러 나라 정당, 단체 대표단과 각계 인사들이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과 수령님들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대표단, 먄마동종의학과학연구소 대표단, 에짚트아랍사회주의당대표단, 메히꼬인민사회당대표단, 메히꼬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위원회대표단과 네팔공산당(맑스-레닌주의) 중앙위원회 총비서, 네팔정부 출판리사회 위원장, 네팔기자협회 위원장,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위원장,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사회주의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인민련맹 위원장, 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 방글라데슈-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빼루로동자, 농민, 학생인민전선 위원장, 빼루사회혁명당 총비서, 자유투표동맹을 위한 빼루민족독립운동 위원장, 주체선군정치연구 빼루-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민주꽁고인민혁명당 총비서대리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양곤지역위원회 집행위원 틴틴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 세계자주화를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국방력강화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과 인민은 반드시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것이다.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진행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태양절과 불멸의 꽃 김일성화명명 50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기네, 중국에서 8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들로 황홀경을 이룬 전시회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불멸의 꽃들이 국제적인 박람회, 전시회들에서 받은 상장과 메달들을 소개하는 사진자료들, 도서들 등이 전시되여있었다. 전시회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대표부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로씨야 나호드까시 1부시장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맞이하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시였으며 로조친선의 초석을 마련하시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관심속에 로조관계는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하고있다.

로씨야 빠르찌잔스크시 시장은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이 조선민족최대의 명절로 되고있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나라를 해방하시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놓으시였기때문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로씨야의 나호드낀스끼 라보치신문사 책임주필은 김일성화는 화초전문가들에 의해 재배되는 꽃이 아니라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키우는 불멸의 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이 김일성동지의 인품에 매혹되여 새로 재배한 꽃에 그이의 존함을 모신것을 통하여서도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얼마나 명망높은분이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김일성화는 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더욱 만발할것이다.

기네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태양절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명절이다.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오늘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관심속에 로조관계는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하고있다.

로씨야 빠르찌잔스크시 시장은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이 조선민족최대의 명절로 되고있는것은 김일성동지께서 나라를 해방하시고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길을 열어놓으시였기때문이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로씨야의 나호드낀스끼 라보치신문사 책임주필은 김일성화는 화초전문가들에 의해 재배되는 꽃이 아니라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키우는 불멸의 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이 김일성동지의 인품에 매혹되여 새로 재배한 꽃에 그이의 존함을 모신것을 통하여서도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얼마나 명망높은분이시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김일성화는 위인의 존함과 더불어 더욱 만발할것이다.

기네김일성화김정일화협회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격찬하였다.

태양절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명절이다.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으로 하여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신다. 김일성화는 그이를 따르는 만민의 매혹과 흠모속에 태여난 위인칭송의 꽃이다.

4월 13일은 김일성화명명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김일성화는 오늘 세계가 공인하는 명화중의 명화, 인류공동의 재보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

경 축 행 사 진 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로씨야 나호드까와 빼루 깔랴오국립종합대학에서는 토론회가, 에티오피아 물공사설계 및 감독기업소에서는 좌담회가 6일과 7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위원장인 로씨야련방공산당 연해변강 나호드까시위원회 제1비서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태양절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명절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태양절을 가장 뜻깊게 경축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의 존엄과 위용은 누리에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걸출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은 앞으로도 미제국주의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면서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것이다.

빼루깜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서기장 등 인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가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그들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였으며 미제의 무력침공을 물리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전승업적, 령군업적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선군사상은 김정일각하에 의하여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김정은령도자에 의하여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에티오피아 물공사설계 및 감독기업소 관개대상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세계가 공인하는 정치원로이시다. 그이께서는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새 사회건설을 적극 지지성원해주시였다.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베닌, 나이제리아에서 련환모임,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와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주체사상탑》, 《개선문》 등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행사들에는 김일성주석 탄생 103돐경축 베닌전국준비위원회, 나이제리아 프라노손만년국제주식회사, 나이제리아 라고스에 있는 식료련합총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주석 탄생 103돐경축 베닌전국준비위원회 위원장 혜쑤 꼬호비는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해마다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일제의 군사적강점으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시였으며 동방에서 처음으로 인민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에게 대참패를 안기고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우신 걸출한 수령이시다.

성명과 담화 발표

태양절에 즈음하여 이란《로동자의 집》이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한평생 조선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의 자애로운 영상과 그이께서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할것이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기에 조선의 앞날은 더욱 밝고 창창하다.

* *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기 듀프르가 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태양절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다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2015년은 김일성주석의 탄생 103돐과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5돐, 조선해방 70돐,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시 35돐이 되는 매우 의의깊은 해이다.

진보적인류는 김일성주석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고있으며 뜻깊은 올해에 주석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적극 벌려나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통일문제는 그 주인인 조선민족이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리행을 적극 지지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고 조선인민의 확고한 통일의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이 있는 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여러 나라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3돐에 즈음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그분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계신다.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짧은 기간에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다.

그이의 선군혁명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과적으로 발사되고 제3차 지하핵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지고 사회주의조선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희망찬 래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3돐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가 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그이에 대한 조선로동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심의 표시이다.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영상이 수록된 영화들에서 볼수 있는것처럼 그이는 가장 인민적인 령도자이시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그이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3년간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안에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한 유일적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신다.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정력적으로 령도하고계신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평생 지켜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것이며 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용납 못할 인권유린, 불법무도한 깡패행위

여러 나라에서 성명과 담화 발표

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날강도적인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네팔조선친선협회,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네팔주체연구소,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네팔전국기자구락부, 조선통일촉진 네팔위원회,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이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장갑차까지 동원하여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의장과 부의장의 집을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한 일본경찰당국의 처사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우리들은 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불법무도한 탄압만행을 준렬히 규탄한다.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는 조일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들은 일본당국이 다시는 이러한 망동을 저지르지 말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

여러 나라 단체들이 일본의 총련탄압만행을 규탄하여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의 기간에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란《로동자의 집》은 총련 중앙의 의장과 부의장의 집을 강제수색한 일본반동들을 준렬히 단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일본의 망동은 일본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될뿐아니라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비법적인 수색놀음이며 민족차별행위이다.

총련책임일군들의 집에 대한 불법침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민족에 대한 일본의 적대의식이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과거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40여년간 중세기적인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일본으로서는 저들의 과거범죄의 참혹한 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의 인권과 생활을 지켜주며 총련의 활동을 보장해주어야 할 법적, 도덕적의무를 지니고있다.

우리는 재일조선인들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즉시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일본당국에 요구한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총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이다.

일본경찰당국의 파쑈적폭거는 조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는 행위로서 엄중한 부정적후과를 초래할것이다.

프랑스조선친선협회는 총련책임일군들의 집을 강제수색한 사건은 일본당국의 반총련책동의 연장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탄압행위라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성명은 일본당국은 시종일관 총련과 그 성원들의 활동을 범죄시하고 의심하면서 탄압하여왔다, 이번 사건은 조선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매려는 일본극우익보수세력의 책동의 일환이며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정책의 산물이다,

우리는 총련에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호소한다고 강조하였다.

* *

방글라데슈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씨에드 아부 자파르 아흐메드가 일본경찰당국의 총련일군들에 대한 용납 못할 강제수색소동을 규탄하여 최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일본경찰당국은 지난 3월 2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집 등을 불의에 강제수색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번에 감행된 강제수색은 일본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전대미문의 위법행위이다.

총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다. 그러므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곧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된다.

방글라데슈공산당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날강도적인 탄압행위를 준렬히 단죄한다. ◎

상 투 적 수 법 은 통 하 지 않 는 다

미국이 우리의 핵과 미싸일능력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있다.

미군부의 고위인물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조선이 핵무기를 소형화하였다느니, 이미 그것을 자체로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싸일에 탑재할수 있는 수준에 올라섰다느니 뭐니 하며 무슨 큰일이나 난것처럼 법석거리고있다.

우리는 미국이 《북조선의 핵능력강화》에 대하여 떠들면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을 결코 스쳐보낼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미국의 핵위협을 받아왔다.

이로부터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억제력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의 핵무기는 철저히 자위를 위한것이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다.

문제는 이전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미국의 행동이다.

미군부당국자들이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기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엄연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핵보유국이라는것을 절대로 인정할수 없다고 강짜를 부려왔다. 일부 인물들이나 추종세력들속에서 우리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소리가 나오면 그것이 확대되지 못하게 압력을 가하며 어떻게 하나 왜소화해보려고 모지름을 써왔다. 그러던것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하여 미군부당국자들자체가 제입으로 우리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싸일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을 해대고있다.

미국이 무엇때문에 태도를 바꾸었는가.

얼마전 미북부군사령관 고트니는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거들며 그에 대한 탐지 및 방어능력을 꾸준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가하면 미국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관과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은 미국본토를 방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하며 현재 군부에서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는 가능성을 론의하고있다는 소리를 하였다.

이렇게 놓고보면 모든것이 확연해진다. 미국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 남조선에 《싸드》를 반드시 전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끄집어내려 하고있다.

미당국자들이 이러루한 주장을 한것은 처음이 아니다. 미국은 이전부터 쩍하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운운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무력을 증강하여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싸일방위체계구축도 우리의 《위협》을 걸고 강행하여왔다. 최근에는 미싸일방위체계구축책동의 한 고리로 《싸드》를 남조선에 배비하려 하고있다. 이것이 우리 주변나라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 나라들은 《싸드》가 명백히 자기 나라를 겨냥한것이라고 하면서 대응조치를 취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싸드》배비의 구실로 삼은 우리의 《위협》설이 통하지 않고있는것이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우리가 핵 및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보유하였다는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미국본토를 겨냥하였다는것을 여론화하여 우리의 《위협》설을 세상사람들에게 납득시키려 하고있다.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가리우고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합리화하자는것이다.

미국은 남을 걸고 저들의 리익을 챙기는 상투적수법에 매달리고있다. 하지만 그따위 유치하고 낡은 수법으로는 세계를 납득시킬수도, 속여넘길수도 없다. 지금 미당국자들은 《싸드》가 우리의 《위협》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며 중국과 로씨야의 전략적안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것이라고 하고있는데 그것은 서푼짜리 말장난에 불과하다.

단언하건대 미국이 남조선에 배비하려고 하는 《싸드》는 전략적으로 로씨야와 중국을 목표로 한것이다. 결코 우리만을 념두에 둔것이 아니다. 그 사명과 성능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고고도미싸일방위체계인 《싸드》는 그 말자체가 보여주는것처럼 먼거리에서 발사되여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싸일을 요격하기 위한것이다. 종심이 깊지 못한 조선반도에서 발사된 낮은 고도의 미싸일들을 요격하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 이것을 고려해볼때 실지 《싸드》가 우리의 탄도미싸일만을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면 전개지역이 남조선이 되여서는 안되며 또 미국본토를 멀리 벗어날 필요가 없다.

《싸드》가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레이다의 탐지거리는 1 000km이상에 달한다. 《싸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는 경우 우리 주변나라들의 군사기지들은 모두 그 감시망에 들어가게 된다. 때문에 이 나라들은 《싸드》가 우리와 대응하기 위한것이라는 주장은 어린 아이를 달래는것과 같은 황당한 것이며 그것이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고 조선반도핵문제 해결과정을 더 복잡하게 할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그 배비를 견결히 반대해나서고있다.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가 로씨야와 중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사적패권을 틀어쥐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더 론할 여지가 없다.

미국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걸고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미국에 도전해나설수 있는 나라들이 집중되여있다. 최근시기 이 나라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있다. 이것이 이 지역에서 패권적지위를 노리는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고있다.

미국은 이 지역의 적수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려 하고있다. 올해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확고히 장악하겠다는 전략에는 변화가 없으며 이것을 군사적힘을 통하여 실현하겠다는것을 보다 명백히 하였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해군무력을 집중하며 핵무기의 타격능력을 높이고 미싸일방위체계구축에 힘을 넣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적움직임은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강한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에는 이것을 잠재울 《적의 존재 또는 위협》이라는 명분이 필요하였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우리의 《위협》을 여론화하고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핵무기의 소형화와 그의 대륙간탄도미싸일탑재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이다.

그 목적은 우리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싸드》와 같은 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미싸일방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임의의 시각에 우리 공화국과 주변나라들에 핵선제타격을 들이대자는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비책동은 아시아태평양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 지역에 새로운 랭전을 몰아오고있다. 《싸드》가 남조선에 배비되면 이곳은 미국의 반공화국압살과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수행을 위한 핵전초기지, 핵화약고로 더욱 철저히 전락되고 주변나라들이 미국의 핵공격목표가 되여 세계적인 핵전쟁위험이 더욱 증대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하여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천만번 정당하며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한것으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는 우리 공화국의 신성불가침의 자주적권리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누구이건 용서하지 않는다.

미국은 이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리 학 남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열병식 진행

이란의 수도에서 18일 군대절에 즈음하여 열병식이 진행되였다. 하싼 루하니대통령과 정부성원들, 군고위지휘관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열병식에서 연설한 대통령은 이란무장력은 국력과 국가질서, 문명의 상징으로서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열병식에서는 각 군종, 병종 종대들의 행진이 진행되였으며 전투기, 직승기, 무인항공기, 미싸일, 전술장갑차량, 반항공체계들을 비롯하여 이란이 자체로 개발한 현대적인 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이 공개되였다.

이날 시스란 발루치스탄주의 해안에서는 해군의 대규모무력시위가 있었다.

경 제 장 성

싱가포르에서 올해 1.4분기에 경제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장성하였다. 14일 이 나라 무역 및 공업성이 밝혔다.

밀수와의 투쟁 강화

웰남세관당국이 16일 하노이의 비행장에서 상아와 서우뿔밀수행위를 적발하였다.

결과 65kg이상의 상아와 서우뿔이 압수되였다.

마약반대투쟁

아랍추장국련방에서 최근 마약반대투쟁을 강화하고있다.

나라에서는 2월과 3월에만도 5차례의 반마약작전을 벌려 9명의 범죄자를 체포하고 13kg의 헤로인과 3만 4 000알의 마취제를 압수하였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베네수엘라에서 반미시위

ㄱ-51064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